

# '교황도 감탄' 전주 전통한지 활성화

## 전주시-신협-한지사업협동조합 업무협약 체결

전주시와 신협, 한지장인들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감탄한 전주 전통한지 활성화를 위해 손을잡았다.

전주시와 신협중앙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은 한지산업 활성화 및 한지상품 수요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3개 기관은 전주전통한지의 보존 및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민·관 파트너십을 토대로 전국 신협조직을 활용해 전통한지 생산품의 판매·마케팅기반 마련과 전통한지 수요확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했다.

시는 전주 전통한지에 대한 품질관리와 한지수요 촉진을 위한 판매활동을 전개하고 각 단체·기관에서 추진해 온 사업과 자체 판로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전통한지 판매기반 조성 및 한지제

품 생산을 골자로 한 이번 협약으로 그간 부족했던 한지제품 마케팅 역량강화와 전주한지의 산업화, 세계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한지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내 4대종교와 전주박물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주한지를 활용한 고서복본 △재외공관 한스타일 연출사업 △의규장각 의궤 반차도 재현 다크이 인형 제작사업 등 한지 사용 외연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전주시는 전통한지의 메카임은 물론 다른 어느 도시보다 한지에 대한 사랑과 발전의지가 깊다"며, "신협중앙회는 국내외 해외 조직망을 통해 전주한지 홍보는 물론 실질적 수요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한지의 우



12일 전주시청 시장실에서 신협중앙회,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이 참여한 가운데 한지산업 활성화 및 한지상품 수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진행되고 있다.

수성을 널리 알리고 계승하는데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하게 될 신협과 어려운 여건에서도 전주한지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한지장인과 전주한지사업협동조합에 깊은 존경과 감사

드리한다"며 "전통한지 원형 보존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한 한지산업 생태계 조성, 전통한지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위해 전주시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 불이 난 주택에서 시신 발견

화재로 무너진 주택에서 나흘 만에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12일 정읍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정읍시 B읍 한 주택에서 A모씨(50)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지난 8일 오전 5시 40분경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무너진 상태였으며 굴착기 등을 이용해 건물 잔해를 치우던 중 시신이 발견된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만 파악할 수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A모씨 아내는 "남편이 며칠 전부터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안 된다"라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모씨가 화재가 난 건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모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강석훈 기자



전북도 자원봉사발전위 회의 12일 전주 이종본에서는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민간위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북도 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를 가진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한복 흠치고 도망치다가 그만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은 채로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35)는 지난달 17일 오후 2시 50분경 전주 완산구 B로 한옥마을에 있는 한 매장에서 시가 33만원 상당의 성인용 한복 1벌, 딸에게 아동용 한복 1벌을 입힌 후 혼잡한 틈을 이용해 절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8일 오전 10시 30분경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 ATM기기 안 현금 흠치다 덜미

ATM기기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65)는 지난 10월 28일 오후 6시 17분경 군산시 B동 농협 지점 내 ATM기기 안에 있던 피의자 C모씨(47)의 현금 20만원을 절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11일 오전 10시경 피의자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 노상 자전거 절도 피의자 검거

노상에 놓인 자전거를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56)는 지난 11월 22일 오후 4시 15분경 군산시 B로 노상에 놓인 시가 25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했다.

경찰은 영상자료를 분석해 지난 11일 오후 1시경 피의자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 '허위사실공표' 황인홍 무주군수... 법정서 "혐의 부인"

### 다음 재판은 21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무주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재판장)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황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이 조합장 시절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단지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러 "피고인은 사실상 조합의 대표로서 받은 부득이한 처벌이었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었다"면서 "후보자 토론회에서 역을 함을 토로하기 위해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 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당시 제출한 사실에 대해 묻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허위로 소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석훈 기자

그는 조합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조합의 대표로서 부득이한 처벌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으나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을 해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군수는 또 이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 소명란에 적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황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4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당시 제출 받았던 황 군수의 지인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진행된다. /강석훈 기자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보'

### 설사·구토·메스꺼움·발열 등 증상 나타나는 장관감염증

### 전주시보건소, 손 씻기·끓여먹기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

전주시보건소(소장 송준상)가 겨울철에 급증하는 대표적인 소화기 질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설사, 구토, 메스꺼움,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급성 장관감염증으로, 이미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특히 굴, 조개류 등)을 섭취할 경우,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경우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며, 적은 개체수로도 감염을 유발할 수 있고, 2차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 대형음식점 등 대규모 환자 발생도 흔하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올바른 손 씻기 △끓여먹기 △이허먹기 등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예방할 수 있으며, 환자 발생 시에는 환경소독 및 세탁물관리를 철저히 하고 환자 구토물에 오염된 물품 또는 접촉한 환경 및 화장

실에 대해 염소소독(1,000~5,000ppm)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환자가 보육시설 및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증상이 없어진 후 최소 2일까지 등원 및 등교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송준상 전주시보건소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자온에서도 활발히 활동해 겨울철 장관감염증의 주요원인으로 손꼽힌다"며, "방심하기 쉬운 겨울철에도 식품관리 및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고, 30초 이상 비누를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며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 '마음 아픈 20대' 20만명 육박

### 지나해 19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3.5% 증가 정신질환 환자 수만 놓고 보면 50대가 가장 많아

정신건강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20대 환자가 1년 사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지난해 2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은 환자 10명 중 3명은 우울증이었는데 지난해엔 불안장애와 불면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5년 사이 35~48% 급증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정신건강 질환 진료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받은 환자는 176만5000명으로 2016년 166만7000명보다 5.9% 증가했다. 지난해 내원일수는 2294만일(전년대비 0.4% 증가), 진료비는 1조4317억원(전년대비 2.6% 증가)이었다.

임원 환자가 9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6.1% 감소했지만 외래 환자가 172만9000명으로 6.2% 증가했다.

연령별 증감률을 보면 20~29세 환자가 2016년 17만2000명에서 지난해 19만6000명으로 가장 큰 폭(13.5%)으로 증가했다. 진료비 증가폭도 1308억원에서 1441억원으로 10.2% 늘었다. 환자 증감률은 80세 이상 10.4%(13만→14만3000명), 30~39세 7.6%(20만7000→22만3000명) 순이었다.

환자수를 놓고 보면 50~59세가 31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17.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뉴시스

질병별로 보면 우울에피소드(F32) 환자가 51만10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불안장애(F41) 35만799명, 비기질성 수면장애(F51) 13만1535명 등 순서였다.

증가폭으로 보면 불안장애 환자가 지난해 37만9932명으로 2013년보다 35.7% 증가했다. 불면증 환자는 12만3898명이었는데 같은 기간 48.3% 증가한 수치다.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에선 운동과 다장애(F90)가 4만5782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환자(5만2543명)의 87%에 달하는 수치다.

20세 이상에서는 우울에피소드(F32)가 48만58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30~69세에서는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 환자가 두드러졌다. 70세 이상에서는 우울증에 이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뇌손상·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F06)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남성들은 지난해 알콜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F10), 운동과다장애(F90), 전반발달장애(F84) 등을 호소한 반면 여성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F00), 재발성 우울장애(F33), 식사장애(F50) 등을 호소했다.

/뉴시스

## 남북, 인플루엔자 정보 시범교환 보건의로 교류

남북이 12일 동절기를 맞아 인플루엔자(독감) 관련 정보를 시범교환하는 것으로 보건의로 분야 교류협력 첫 발을 내디뎠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 보건의로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남북은 인플루엔자 관련 정보를 시범교환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인플루엔자 정보를 주고받

기로 했다. 나아가 기타 감염병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이날 남측에서는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등 3명, 북측에서는 김운철 보건성 국장 등 3명이 각각 참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구체적인 사항은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뉴시스

## 덕진구, 용정1지구 경계결정 주민설명회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가 2017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용정1지구(437필지/196,346㎡)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및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12일 월곡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구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최대한의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맹지소유자들의 합의를 모색했고 그 결과 437필지 중 25필지 맹지를 해소해 토지의 이용 효율을 향상시켰다.

구는 오는 18일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거친 뒤 경계를 확정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송효철 기자

지적재조사사업이란,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로 측량해 만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잘못된 지적공부를 바로잡아 활용도가 높은 평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고 현상경계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이다.

덕진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사업지구 내 토지경계 분쟁과 사유재산권 침해 등 토지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토지에 관한 많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 바이오뷰티개발 성과 발표

###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센터 연구성과 등 소개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사장 김양수)은 지난 11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바이오뷰티개발센터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농생명소재연구원은 바이오뷰티개발센터의 그간의 운영성과를 소개하고, 참석한 전주시민과 바이오뷰티기업에게 바이오뷰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했다.

또한, 화장품산업의 신트렌드를 이끌 전주 바이오 소재의 경쟁력 요인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를 시작으로 △동물대체 시험법 △피부노화와 항노화 기능성화장품 소재개발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전주바이오뷰티협의회(회장 김양수)는 이날 전주 농생명 분야 활성화와 바이오뷰티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강동화 전주시의회 부의장과 서난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기동

문화경제위원회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강열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전주시와 전주시회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많은 뷰티기업이 이번 성과발표회에 참석해서 미래 뷰티기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뷰티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뷰티개발센터를 통해 개발된 피부 미백 및 보습용 화장품 조성물 관련 특허를 바이허브(주)에 기술이전을 했다.

바이오뷰티기술 관련 사항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한 문의는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바이오뷰티개발센터(063-711-103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